메리츠 금융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은행 Analyst 조아해
02. 6454-4870
like.cho@meritz.co.kr

RA 김지원
02. 6454-4878
jiwonkim@meritz.co.kr

2022년 10월 5일 (수)

News

은행 정기예금, 한 달 새 30조 몰려…가계대출 9개월째 감소 — 뉴시스

5대 시중은행의 전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총 695조 830억원으로 전월비 1조 3,679억원 감소… 올해 들어 9개월째 감소세 지속 중

주담대 잔액은 전월 말 기준 508조 3,777억원으로 전월비 1조 754억원 증가…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 5,620억원으로 전월비 2조 519억원 감소해 3월이후 가장 큰 폭 감소

인터넷 은행에도 예·적금 몰린다…대출도 9개월 연속 증가세 — 연합뉴스

전월 말 카카오뱅크의 수신 잔액 총 34조 5,560억원으로 전월비 1조 3,806억원 급증… 케이뱅크, 수신 잔액 9월 말 13조 4,900억원으로 한달새 1,400억원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영향으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9개월째 감소 등 대출 수요 줄었으나, 인터넷 은행의 여신 잔액은 9개월 연속 증가세

신용대출 금리 첫 8% 넘었다 — 헤럴드경제

신한은행, '쏠편한 직장인대출'이 최고금리 8.12% 기록… 하단도 7.22%로 7% 넘어… 'KB직장인든든 신용대출'의 금리 상단도 최저 6.10%에서 최고 7.10%를 기록

대출금리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 미국 연준이 다음에도 큰 폭의 금리인상 단행 예고했기 때문… 금융채 12개월 연동 신용대출 금리가 9%대 다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

신한은행, 기업·가계대출 취약차주 채무조정 확대 — 서울경제

신한은행, 기업대출 취약차주 대상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하고 기업·가계대출 취약차주 대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한다고 발표

급격한 금리 상승과 경기 위축 등으로 기존 은행권 공동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추진… 가계대출 취약차주 대상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

손해보험도 팝니다 교차설계사, 코로나 후 2만5천명 떠났다 — 데일리안

국내 15개 일반 종합 손보사에 등록된 교차 모집 설계사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 54,138명으로 코로나19 이전 2019년 말에 비해 31.8% 감소

생보사에 소속되어있으면서 손보사 상품 팔기 위해 교차 등록한 인원… 한화생명의 영업 조직 변화도 영향… 갈수록 경계가 모호해지는 보험상품 트렌드도 자리

삼성금융리츠, 출격 준비…1200억 프리IPO 추진 — 서울경제

삼성SRA자산운용, 삼성 에프엔 리츠 상장을 위해 대표주관사로 삼성증권 선정 및 1,200억원의 프리IPO 진행 중… 자본 확충 이슈와 더불어 계열사간 부동산 투자 시너지 목적

자금 조달 금리 높아져 캡레이트가 크게 떨어져 부담이지만, 자산 매입 규모보다 더 많은 자금 확보해 연 4~5% 배당 계획… 선순위 대출받으려 논의 중이며 생명도 일부 지원 예상

우려 커지는 레고랜드발 보증채무… 조마조마한 증권사들 — 디지털타임스

강원도,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2,0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 서… GJC에 대한 회생 신청 결정

이에 따라 관련 ABCP에 투자한 증권사들의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 다만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미지수… 다른 발행물의 차환 조달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예탁금 맡겨도 연 1%…증권가도 예대금리차 공시 적용될까 — 이데일리

8월 투자자예탁금 수익률 2.36% 차지하며 5년래 최고치 기록… 당시 기준금리 2.5% 대비 0.14%p 낮은 수준… KB증권의 1.03%와 1.33%p 차이

여당 관계자, 증권 계좌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필요 주장…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좁혀질지 의문인 상황에서 증권가에도 적용 효과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